

## ■ S-205 ■

## 영구형 심박동기 합병증으로 발생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강동경희대병원 심장혈관내과

\*김현수, 조병현, 황희정, 진은선, 박창범, 손일석, 김종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은 takotsubo cardiomyopathy 혹은 apical ballooning syndrome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대개 갑작스런 신체적 감정적 자극에 의해 발생한다. 임상 양상은 흉통, 호흡곤란, ST 분절 변화를 포함하는 심전도 변화, 심근효소의 상승이 있어 급성 관상동맥증후군과 감별을 요한다. 관상동맥조영술에서는 대개 정상이며, 한 관상동맥 이상의 영역에서 좌심실 심첨부의 무운동, 이상운동을 동반한다. 본 저자들은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후 스트레스성 심근병증이 발생한 증례를 경험하여 보고한다. 저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본 증례는 국내 첫 보고이다. 87세 여자 환자가 응급실에 실신과 어지럼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신체 검사에서는 39 회/분이었고, 혈압은 134/74 mmHg였다. 심전도는 좌각차단을 동반한 완전 방실 차단 소견이었다. 혈액검사상에서 혈색소 10.7 g/dL였고, 심장효소는 TnI만 0.062 ng/mL로 약간 증가해 있었다. 심초음파는 좌심실구혈률(이하 EF) 58%에 벽운동장애는 없었다. 환자는 과거력상 고혈압이 있으며, 5년전 급성심근경색으로 우관상동맥과 좌전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한 상태이며 약물로 carvediol 6.25 mg을 복용하였다. 약물을 중단후 경과 관찰 하였으나 심전도와 임상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3일후 임시형 심박동기를 삽입하였고, 삽입후 어지럼증이 호전되고, 심박동기 중단시에는 다시 완전 방실차단이 지속되어 영구형 심박동기를 DDDR 모드로 삽입하였다. 영구형 심박동기 삽입후 12시간 후 환자는 의식이 저하된 상태를 보였고, 심전도는 설정된 심박동기 60회로 ST 분절이나 T파의 변화는 없었으나, 심근효소는 TnI 4.01 ng/mL로 증가하여 관상 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다. 과거에 시행한 2개의 스텐트에 재협착 소견은 없었고, 신생 병변도 없었다. 심초음파는 EF 32%, 심첨부와 중앙부 심근 전체에 무운동 상태, 기저부는 정상 운동을 보이는 스트레스성 심근병증 상태였다.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환자의 임상 양상은 호전되었고, 10일후 시행한 추적 심초음파에서는 벽운동장애는 없었으며, EF 50%였다

## ■ S-206 ■

##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심방세동의 양상 및 원인에 대한 연구

창원파티마병원내과<sup>1</sup>,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sup>2</sup>\*한양천<sup>1</sup>, 최 영<sup>2</sup>, 윤건중<sup>2</sup>, 김민재<sup>2</sup>, 유현아<sup>2</sup>, 최봉룡<sup>1</sup>, 신재원<sup>1</sup>, 이일수<sup>1</sup>

**배경:** 심방세동은 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부정맥 중의 하나로 여러가지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뿐만 아니라 강력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다. 심방세동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을 수록 그 발생률 또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심방세동 빈도에 대한 조사는 아주 드물고 60세 이하의 연령에서 심방세동에 대한 조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는 발생한 심방세동 환자의 임상양상과 원인 및 동반질환을 알아보고 향후 장기적 추적 관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대상 및 방법:** 2005년 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 사이에 본원의 외래, 입원, 응급실 방문 환자중 심전도나 24시간 Holter검사, event recorder 등으로 심방세동이 확인된 환자로 제한 하였으며 진단 당시의 나이가 20세에서 59세 사이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과:** 전체에서 심방세동의 양상은 발작성 심방세동이 가장 많았으며(52.5%) 지속성 심방세동과 영속성 심방세동은 서로 비슷했다 (22.4 % vs 25.1%). 더 젊은 연령 즉 40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발작성 심방세동이 전체보다 좀더 많은 경향을 보였고 (57.1%), 다음으로 영구형 심방세동 (26.5%), 지속성 심방세동 (12.1%)의 빈도를 보였다. 발작성 심방세동의 임상증상은 심계항진이 가장 많았으며 (80.4%), 그 외에 흉통 (12.9%), 호흡곤란 (2.9%), 어지러움 (1.9%), 실신 및 전실신 (1.9%)의 증상을 보였다. 동반질환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많았고 (32.4%), 심부전 (10%), 당뇨병 (8.8%), 갑상선 기능항진증 (8.6%), 허혈성 심질환 (4.2%) 등의 순서를 보였다. 심부전은 발작성 심방세동보다는 지속성 및 영속성 심방세동에서 더 흔하게 동반되었다 ( $p<0.001$ ). 나이가 더 젊은 40세 이하의 환자에서는 심부전이 가장 흔했고 (16.0%), 그 뒤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12.0%), 고혈압 (12.0%)의 빈도를 보였다. 고혈압은 40세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40세 이후에서 많이 동반되었다 ( $p<0.001$ ). **결론:**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심방세동 환자의 임상양상에 대한 연구로 향후 환자의 관리 및 장기적 추적 관찰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겠다.